

## 행복한 금요 편지

# 내게 쓰는 편지

이병혜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sup>1)</sup>


전례주기는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이 새해 첫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림주일 1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2주일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 3주일은 그리스도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기이다.

대림주일 3주째를 맞아 미사 참례를 위해 보통 때보다 일찍 성당에 왔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본다. 내게 허락해 주신 2016년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행복하다. 시간이 나이의 제공만큼 빠르게 간다더니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천지창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그 이후 우리가 지구별에서 살다가는 90세 전후의 삶은 과연 주님의 시간으로 얼마나 될까... 지나온 세월은 짧게 느껴져도 하루는 길고 지루하다더니 한 학기 강의 마친 날이 겨우 엇그제인데 이번 방학은 다른 때와 다르게 보내려는 기대 때문일까 벌써 길고 힘들게 느껴진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를 보면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자유자재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니 과거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최고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영화에서조차 여러 번 시도를 해도 만족해하지 않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이병혜 한선재단 이사는 명지대 교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총괄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전 KBS 한국방송공사 5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이사를 지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마음을 잇는 것은 곧 마음 그 자체를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두 번은 살 수 없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에 더없이 아쉬움을 남긴다.

내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의 삶을 바꾸려 할까. 이번 주 고해성사를 하러 간다. 잘 한 것 보다 반성의 여지가 많은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린다. 누구에게나 자기 존재 깊은 곳에 박힌 한 두개 정도의 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듯이...나 또한 그렇다.

인생이란 긴(?) 시간의 실타래를 착하고 성실하게 엮어간다고 죽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것도 없다. 갈등의 실마리만 다를 뿐 본질은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타고난 우리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상대와 부딪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도 든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제까지와 다른 내일 즉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생각과 그것을 행할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은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들의 주소는 집이 아니라 길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늘 여행 중이다. 인생에서 모험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벽을 깨게 하는 모든 사건들이 모험이고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여행일 것이다.

우리 집 식탁 위의 작은 말씀 구절이 해답일지 모르겠다.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늘 기도하라.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